武裝團八名

安州大尼面에出現

현장의급보를접하고 署長以下警官急行

안주(安州) 경찰서에서는 칠일아츰부터 연허 비상소집을하야가지고 동팔시경에 자동차와도보로 서장이하 십수명의 경관이 안주군대니면남계리(大尼面南溪里)방면에 급히출장하얏는데 사실은 그동리에 무장단팔명이 나타낫다는 급보가 잇슨새닭이라더라 (안주지국특뎐)

해마다봄철이되면 民事裁判이激增

근일경성디방법원에드러온 형형색색여러가지재판사건

『봄은오거나 가거나내가알바이라』하는드시 다만그날그날의시비곡직(是非曲直)과 표리흑백(表裏黑白)을가리기에여념이업는재판소(裁判所)의최근상황은 엇더한가 재판조구내에 한번발을드려노흐면 그곳에는권리(權利)와의무(義務)를 다투는사람들이 가득히모혀잇다 해마다봄철이면 형사재판이 그리만치아니한것도 이상한현상이오 그대신민사재판(民事裁判)은봄이거나여름이거나 변함업시 사건이드리밀리여 민사부원의 머리를썩이게된다한다 근일에 경성디방법원에서 심리중에잇는 민사재판의 몃몃가지를 긔록하여그근황을보도하건대

『릿커-』와그의안해『나가』를 거러서 손해배상금 오백원을청구하는소송을 데긔하야 방금진행중인데 그리유는권거 피고내외가빗달라고원고집에와서『단장』으로 원고를함부로때리여 여러달치료를 하게되엇슴으로 그치료비와 치료할동안의 생활비로 그가티 오백원을 청구하는것이라하며

病家를뷔라고 병목뎡의비극

부내황금뎡(黃金町)이뎡목일백팔번디사는중산풍추(中山豐秋)라는일인은 자긔소유로잇는 부내병목뎡(並木町)이백이십일번디 초가서너간집을 수년전부터리동식(李東植)이라는사람에게매월십원의 삭월세를 주어오다가 작년 구월부터이래 칠팔개월동안은 삭월세를못바덧다하야 권긔 리동식을거러서가옥명도(家屋明渡)소송을하면서 일변가집행(假執行)허락을마터가지고 방금 리동식의 조모인 칠십로인이 병으로알코잇서사정이 나가지못하겟다고 애걸하는 리동식이더러 당장나가라고 매일야단을 치는중이라하며

免職當한行員 귀향려비청구

동경시하곡구죽뎡(東京市下谷區竹町)십팔번디살든 서촌연재(西村延哉)라는일본인은지금으로부터 팔구년전에조선은행(朝鮮銀行)에취직하야 이래팔구년동안은행원생활을 하여오든중 작년사월에 이르러 돌연히 조선은행으로부터 면직(免職)을 당하엿슴으로 할수업시 생활의길을차저 자긔의원고향인 북해도소준시(北海道小樽市)로가게되엿든바 그는조선은행총재(朝鮮銀行總裁) 야중청(野中淸)씨를거러서 집에도라갈려비(歸鄉旅費)삼백오십여원을 청구하는소송이잇는데 그리유인즉 조선은행에는 면직식히는 행원에게주는내국려비규뎡(內國旅費規程)이라는것이잇서서처자의려비까지라도 주게마련이 되엇는데피고의 은행에서는 자긔를돌연히 면직식히면서 려비까지도 주지안는 불법행위를 하엿다는것이라하야 그가티 소송하는것이라하며

빗졸린損害로 오백원을청구

부내뎡동(貞洞)이십오번디사는양복장사『이완、니코라윗치、치하노푸』라는 아라사사람은서대문뎡(西大門町)이뎡목일백륙십칠번디사는『푸레데릭크、에이카』

七百圓을내라 삼년된세음청구

부내종로(鍾路)삼뎡목일백이십삼번디 리룡락(李龍洛)이는양주군와부면덕소리(楊州郡瓦阜面德沼里)오백륙십번디사는 한필구(韓弼求)에게 재작년 칠월에 이천원돈을 빗으로주엇는데 아즉도 칠백여원돈을 바들것이잇다하야칠백원대금(貸金)청구하는소송을 데긔하야 방금진행중이라하며

밥갑내이라고 주객간에재판

부내종로(鍾路)오뎡목오번디뎡룡식(鄭龍植)이는밥갑이십원을 못바덧다고 가평군상면상동리(加平郡上面霜洞里)일백칠십삼번디 정뎔현(鄭喆賢)이를거러서 소송중이라더라

奸惡한貸金業者

원금백여원에륙백원을밧고 또부족하야집세지빼앗고자

권주완산뎡 삼백륙십삼번디(全州完山町三六三)에서 음식뎜영업을하는백치운(白致雲)(四六)은 대정칠년봄부터 권주 다가뎡칠십구번디(全州多佳町七九)포목상김종규(布木商金鍾圭)(三○)와 거래를 시작하야 현금십오원과 물건외상갑 일백십오원을 합하야일백삼십원의 갑흘것이 잇든바 대정팔년 음팔월에 차용증서(借用證書)를 써주고 그이듬해구월에 갑허주기로 약속하엿든바 권긔백치운은여러가지 사정으로 그긔한에 갑지못하엿더니 김종규는 심히 독촉을 함으로권긔 채무에리자를매어원리금(元利金)합하야이백원으로 고친후자긔의 가대외저당보물로 주고매일 이원식의월수치계로갑허주다가동십원년 음이월이십일에 다시원리금을 이백륙십사원 륙십일권으로 회계하야또매일 이원식을갑기시작하야 십삼년 음륙월십오일까지 권후륙백륙십팔원을갑헛는데 김종규는 이상과가티 물거갑에 리자를밧고리자에 또리자를바며 원금외사배이상을밧고도 오히려 부족하든지 지난 사월십칠일에 돌연히배치운에게 또삼백팔십원을 바들것이잇다 고지불명령(支拂命令)을하엿슴으로 배치운은 억울함을익이지못하야 즉시이의신립(異議申立)을하엿더니김종규는배치운을 차저와서 이의신립을취하(取下)하면 당보물도 도로내어주마하고 감언리설로 꾀어취하케한후 가만히십사일이지낸후 배치운의집을 경매코저함으로 배치운은 김가의간악한행위에분함을이기지못하야권주경찰서에 김종규를걸어고소를데기하엿슴으로동서에서는 김가를호출하야 엄중히취됴한결과 김가는 륙백륙십팔원을 리자로하엿스며 삼백팔십원은 원금이라주장함으로즉시원피고를 대질시킨바 배치운은 김가의 추악무도한행동을 무수히면박하여일장의활극을이루엇섯다는데 이사건을취됴한 동서원은말하되『김종규가 배치운에게삼백팔십원을현금으로주엇다하나김가의립증한증인의말을들어보아도 사실이아닌것가트며 만일현금으로 주엇다하더라도 그간륙백여원을바든이상에또집까지 빼스려함은 너무나무리한 일이라』고분개하더라(권주)

正衛團總會

임원권부를개선

시내와룡동(臥龍洞)칠십오번디에잇는 정위단(正衛團)에서는륙일 오후네시부터 동회관안에서 림시총회를 열고 림시의장지필(張志弼)씨의 사회아래 여러가지 진행후 임원을선거하엿는데 위원의 씨명은 다음과같다더라

◇執行委員 李長進(鳥致院) 鄭業摸(群山) 互興(開城) 文(濟州) 洪養文(漣川) 金鎔軍(延白) 李成玉(開城) 宋貴(鳥致院) 徐光勳(平壤) 李麗春(京城) 朴永圭(京城)

◇常務委員 團長李麗春 總務徐光勳

난데업는돌이 수백개계속하야 집안에떠러진다

경남언양(慶南彦陽) …部里)배인찬(裵仁…)씨집안에 떠러지는것인지 지난오일저녁 …

臨農奪耕하면서 兄弟協力하야毆打까지

피해자는고소를데긔하야

전남장성군북일면성산리리길인(長城郡北一面星山里李吉仁)은 부안군줄포 김경중(扶安郡茁浦金暻中)씨의 논두마직이를성작하든바 작년가믈한해에도 금년을바라고 소작료를디주의 요구대로주엇스며 더욱세금 이원팔십삼권까지 그해 십월삼십일에 머리되는 김삼이(金三伊)에게 주엇슴으로 구작인은 안심하고 이날까지 농사에 진력하든터인데 지난유력칠일에야 돌연히대리김삼이가 세금을 도로줌으로 구작인 리씨는 모자리까지다된이째에 과실도업는데 논을떼는법이 어데잇느냐하고 한편으로 비료를내든바 선종승(宣宗勝)이란자가 그의친제를다리고 작권을 새로어든이상 너는권리가업다고 머리에 달려와서 가진행패를다하며 형데가 합력하여가지고 함부로따려서 일주일이상 치료를밧게상처를내엿슴으로 리길인이는 진단서를 첨부하야 고소를데긔하엿다는데 머리인김씨는 신작인선씨에게말하되 걱정마소 모를심어노흐면 가을에는 신작인이거두어들일권리가잇다고주장함으로 일반의 비난이극도로비등하다더라(장성)

日本青年自殺

경인선축현에서

륙일밤열시반에 경성역을 떠나동열한시 사십오분에 인천역(仁川驛)에도착한 데이배이십오호렬차의 차례에 이상유무를 검사할때에 긔관차 바퀴와기타에선혈이 림리한것을발견하고 역원은 즉시갓가운 선로를순회 됴사한 결과축현역(杻峴驛)못 밋처도산뎡(桃山町)오번지압선로에허리가 쓴어커 창자까지 나온시데가 잇는것을 발견하고즉시인천서(仁川署)에고발하야경관과 의사가현장에 나가검시됴사한즉 주소성명을 모르는나히 …

横死學生

亡夫의遺志로 李女史의美擧

평양숭인교에

숭인학교

養老會員大憤慨

水火不通交際斷絶決議

… 리긔성(李基性)에게의연금 … 위원에게홀대하는동시에 회에대하야 모욕하엿다 하 … 림시대회를열 … 긔성에게출장하엿든 위원 그시말을듯게되엿든바 그

청년회에빗을주고도일본인소천(日本人小泉)에게빗을내왓다하고또는자긔가청년회의사업에 협력하여 준다는미명하에서내면에 잇서서는 자긔리익을위하야 고리대금까지 한자이오 이와가티 무도덕한 자인즉 우리는 철뎌로 쫏차내지아니하면아니됨니다 이자를 쫏차내는데잇서는 우리는지금부터 일제히리긔성의집을 에워싸고 그자보고나가라고 하며나가는 날까지그자의집을 에워싸고 잇습시다』하는 백여명의 회원들은그놈 조금도 용서치못할 놈이오

회장말슴

하는대로합시다며 찬성대찬성이 오하는소리가 회관의 내외에 진동하엿다또엇더한회원으로서 말하기를 나는 리긔성과도 친하고 양도회의회원인까닭에 이사건을 중재하기 위하야 리긔성에게 가서사과하라하엿더니 리긔성은『나는조금도사과할일이 업습니다 그러한 늙어싸진것들에게 벌네가튼 것들에게 무슨사과를한단말이오』합되다

그럼으로

나는다시말을 못하고 도라왓습니다』이말을드른일반은 그놈참악독한 자입니다긔어코 쫏차내입시다 하고리긔성에게서 바든돈 백원과입회금이원을 돌려보내고 우리회에서제명하며 우리라주 쏘방은 서로서로의사이에 말을하야 리긔성과 수화를 불통하며언어를가티아니하기로 결의하엿다더라

우리라주

… 박주원 고차련량씨의울내바든보고가 잇나자 부회장김쥬규(金秤圭)씨로부터말하기를『이자는 그대로둘수가업는 자이니 우리는철뎌로 라주에서 구축하는방법을취합시다 이자가 우리라주에 잇스면잇슬사록 우리라주에는 해독만끼칠자임니다 우리양도회에 만해독을쉬처는것이 아니라권에라주청년회에도 만흔해독을 끼친자입니다 라주청년회에서 사업경영하기위하야 금권을 차용할때에리긔성에게부탁한일이잇습니다그런데리긔성은자긔금권으로 청년회에빗을주고도 …

참우숩니다 리긔성의말

별항과가티 결의한것을 들은리긔성씨는 말하되『참우수운일이오나는 그네들에게 조금도감정 …

巡査의不注意로 小兒一名惨死

알콜에불을주어아니하야 종두하려갓든아이를죽여 忠州警察署는掩蔽에努力

… 사망하얏는데 부면이 … 충주의원으로 다려다가 … 사무를 하다하얏스나 중도 … 충주경찰서(忠州警察署)에서는 … 책임자인 … 엄폐하려고노력중이라는 … 사회에서는 사건의귀결 … 주목중이라더라(청주)

文簿强奪事件

고소를데긔

… 등이 가지고 잇는문부를 강탈한 사항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지난오일에 위원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제재함은 물론 법률의힘을빌어 문부강탈한죄와 또한그들재 여러가지불법행위에 관한 죄명을 드러당국에 고소하기로 가결하고 벌서그 수속을 마치엿다더라(함흥)

十年만에五厘昇給

현대제도의죄악을설명하는 칠십세로녀공의가련한애화

… 만국공원(萬國公園)옵에 … 버국새소리 … 지난륙일밤 … 녀공조합통상회(女工組合通常會)를 방문 … 회수권으로며 … 푸른동동한 치마자락 거드면서일권오권의 사실 조합비를내이는녀공들!

귀자는 문득나희 칠십이나되여보이는 늙은부인하나를발견하엿다 그는회곳회곳한 머리털다싸지고남은니몸 주름잡힌얼굴 꿉으라진허리를가진조선정미소녀공백씨(朝鮮精米所女工白氏)로인이란다 로인은 조선정미소가창설되면서부터십여년이라고하는긴세월을 쌀골으기에 종사하엿나는데그의가슴에도어느한쪽은컨한곳이잇슬는지회곳회곳한머리털도 쌀고르는까닭 다빠지고남은니몸도쌀고르는까닭 주름살림얼골도 쌀고르는까닭 꼽으라진허리도쌀고르는까닭 이것이 분명한것은 오작

속이업는

사실이다 그의 후반생쌀고르기에 정력을 다한 생활의리면은엇더한가 로인은긔자의 물음에 다음갓치대답하되 사는것이 오작한것가 그날그날 먹고살기에 밧분데어느 저를 … 이오 그것은 내가쳐음일할때 (조선정미소창립당시) 한레(一籍)에이권오리엇섯는데지금은 삼권이랍니다

십여년만

에오리가승급된세음이지오 하로종일 하여야얼마되닛가 우연만 하면여섯레하고 엇잘하여야 열레는하지오 열레를하여야 삼십권버리밧게아니됨니다그것가지고어떤것들여리고사느라니 사는것인가요 상여금 말슴이요한십원하지오 커의몰을(十二月末)에에돈이십권하고무명수건하나식 준담니다 그것도 아니주는 정미소가 잇서요쌀 고르는시간이요 그것은 요사히는아츰일곱시부터커녁다섯시까지

도합열시

간동안이나된담니다 그속에서 면심시간삼십분은잇지요 하고집행이를들고 일어선다 아 아십년만에 오리의 승급!이무서운사실이엇지녀공의생활뿐일명압이아니랴!(인천일긔자)

二十九歲를一期로 李縡榮君의最後

위관한을엇지못하야 쥐잡는약을먹고말어

… 사랑하는애인을 리별하고 거긔에비관이 되여죽엇다하는자도잇스며혹은어려서부터 호화로운생활을 하든것이 졸디에 가운이비하야 자긔의잘못인지 잇든 재산을 다떠러업새고 말경에는 승속불급(僧俗不及)이되여야하나 그것에맛지아니하야 정신에이상이 생겨서 죽엇다하는자도 잇고 혹은엇더한일을 계획하고

달성하기

위하야무한히 노력하야왓스나 자긔부모는 이를 반대하야 원조는고사하고 도리어사업에방해를하고 또간섭한 … 가잇섯스나 … 모다수포로도라가게되엿슴으로그와가티 의외수단을쓴것이라하야자못 의론이분분하나 반드시 그리면 …에는 엇더한파란과 곡절이숨어잇슴을집작하야 알수가잇다 그래서 긔자는그진상을

됴사하기

위하야그의자택을방문하고 동시에 부근각처로도라다니며 자세한내용을 탐문한바에의하면 누구를 물론하고 한줄기동정의눈물을 색리지아니할수업다 엇지하야 그러냐하면 그는어려서부터 부모의사랑미테서 남아나밧는 행락을맛보아왓슬뿐아니라 자긔 부친의 슬하를떠나서 례천읍내에다 집을사고 또던답간에 몃십두락을 어더가지고 따로자긔를

나혼실모

(實母)와가속을다리고 남부럽지안케 살어감에도불구하고 그는 무엇이부족한인지 항상조치안흔긔색을 가지고지내왓섯다 모든것을 스스로개탄하고 그만 하느님의아들이되기로 굿게맹서하엿다 그러나 아죽그당시에는 례천에교회(敎會)가업고 또한 밋는자가업는까닭에 자긔가거처하는 사랑방을 임시레배당으로뎡하고 위선조사(助師)를

고빙하야

힘것뎐도한결과 다소의동지를엇고 또만흔물질을제공하야 디방교화사업(地方敎化事業)에 힘써왓슬뿐아니라 삼일운동(三一運動)이일어나든 그이듬해에 신국단(新國團)김일산(金一山)일행이 례천에와서긔회하야 자긔 소유인던 답 이십여두락을 소도(小島)라는 일본사람에게잡히고 돈일천오백원을내서 자본금으로 하고 문화선뎐(文化宣傳)겸 각 디방사정을알기위하야

신국단에

주인공이되얏다 그래서경상남북도(慶尙南北道)를순회하는그동안에 ○○○에가입하야○○○을비밀리에서계획하다가 목뎍도 달하기전 경찰에게발각되야 대구감옥에서 반년동안의 텰창생활을하고 나온이후로는 영마직이나 잇다는것은 빗에다빼앗기고 오히려 의식이곤난하야 혹은 리발영업(理髮營業)을한다 혹은안동(安東)례천으로도라다니며

호떡장사

까지한일이잇서서 그당시에는 누구를물론하고 정신에 이상이잇는사람이라하야 조처못한비평도 만히들어왓섯다 그뿐아니라 자긔가지극히 사랑하든본처윤모(尹某)는 엇더한 불미한행동이 잇섯슴으로인하야 남이알뜻모를뜻 적지안흔풍파가생겨서 곱다케지내든가뎡이 일조에 수운이중첩하야 일시도편안한날이업시 불평비애

의속에서

남모를원한을 부르짓게되엿다 그래서 마지못하야 생리별을고하게되고 다시 리상의처를 구하든중 행인지불행인지 엇더한 신녀성(新女性)을 눈정으로보게되야 장래를의탁코저하다가 그역시 뜻대로이루지못하고 결국 구가정에잇는 엇던부인을어더가지고지내가는 터인데 그럭저럭하다보니 돈날구석은업고 생활이 구차하게되야서 자긔가 몸

담어잇는

집을팔어가지고 작년부터 자뎐거고물상(自轉車古物商)영업을시작하야 근근히살어감에도 불구하고 도모지 자긔부친이 돌보지아니하는 까닭으로 그와가티 자살한것이라한다(례천)

苗浦에는 父母叫린자식

오입하지말라고하얏다가 어미아비를모도따린자식

권북줄포항신언뎡(全北茁浦港新堰町)에서주상(酒商) 영업하는 장봉순(張鳳淳)(五三)은 늦게야아들장옥성(張玉成)(二八)을 두고 그안해 김원산(金元山)과 애지중지하며

지내든중

장옥성은주색잡기에 출몰하야 부랑하든중 장봉순은 주상을흥왕케할 목적으로 작년에 산호주(珊瑚珠)란계집을 작부(酌婦)로 다려다두엇는데 장옥성은 커의써리비밀속에서 정이니 련애이니하고지나든바 부모는 이긔미를알고장가도아니간아이가 이러한 짓을하는것은

불가한일

이니개과하라고 책망하엿더니 그자는 제어미를 작은방으로 다리고가서 방문을걸어 잠그고 팔을빗틀어묵거노코 함부로 따리고그이튼날은 권날부터 지내온집안불평이 다시폭발되야 옥성은세간을함부로 따려부시다가 그를책평하는 제아비를 또장작가지로 따리는것을 져테서보든 지두행(池斗行)은그놈을따리며 무지첫는데필경당디

경찰서에

구인되엿섯는바 그래도장봉순은 애자지정을 못이겨경관에게애소하야한달밤 지낸후에방면되얏는데 당디인사들은 그놈의부자를 거주치못하도록쫏차내리엇거리하는동비난이놉다더라(줄포)

色魔日人 少女凌辱

돈십전을주고 강간코자하여

지난륙일 오권팔시경에 밀양읍내일동(內一洞)상포현길(常包賢吉)이라는 일본인의 집에서 십삼사세되는 계집아이가 분을참지못하야울며 문을박차고나오면서 사람살리라는 소리를집으로 이소리를들은 리웃사람들은 엇더한일인가하야 그일본인의집으로 몰려가서 일시는 매우 혼잡을이루엇는데 이제그 원인을들으면 권긔일본인의집에 수일권에 원동여관(院洞旅館)에잇는 동정삼봉(藤井森雄)(二九)이라는 일인이 엇더한일로 와잇스면서 상포(常包)의 집에 심부름군으로잇는 윤련이(尹連伊)(十四)라는 소녀를강간하려다가 발각되야 이와가티소동이이러난것인데 강간을당할번한 윤련이의 말을드르면

아침밥을먹고 그릇을 씨슬때에 그사람(藤井)이 돈십권을 주면서 작구드려오라기에 나는 엇권일인가하고 드러갓더니 고만목을씨어안고 옷을빗기면서 집생의행동을 하라기에 아모리주인을불러도 오지안음으로 고만내가 그놈의팔을물고차서 근근히 뛰어나와서요 하면서 말도마치기권에 분을참지못하야울며 등정(藤井)은 고만다라낫다더라(밀양)

婦女遊山도警察

싸홈할념려가잇다고

라주(羅州)에는 삼색계(三色契)라는것이잇서 매년춘절을당하면삼색계에서 유산(遊山)을하는풍속이 잇는데 지난오일에 라주 북문외 심향사(尋香寺)에서계원 백여명이 유쾌히놀면서 라주시가로 진행하는 중에이들을구경하기 위하야 남녀아동이인산인해를 이루엇든바 오후 팔시반가량은 되야불의에 경관대가출동하야 모든악긔등을 뺏고놀음을 중지식켯는데 그리유인즉밤도깁고 또는싸홈 하기도쉬울뿐아니라 또는동일 원만히 이조타함으로 일반계원은 우리 부인들이 무슨싸홈 해산 하는것 또커녀밥도 먹지아니하얏스나 지금우리 일행이 커녀밥먹는장소까지가서 마치겟다 하얏스나 그경관은 악긔를 쎄아서주인을 불러주면서 부인의 유산에남자가만히 구경하는것은 자미가적은일이라고하면서즉시해산을식혓다더라(라주)

淸安公普生 敎員排斥運動

교장에게진정서데출

충북괴산군(忠北槐山郡)청안공립보통학교(淸安公立普通學校)에서그학교륙학년생도이십사명이 결속하야 지난륙일그학교대기교장(大崎校長)에게네가지조건을 들어데출하고 만일원만한해결을 래일오권중에 취적하야주지아니하면최후수단으로권부가 휴학을단행한다 하야그학교는방금분요중에잇는중더욱주모자로 인뎡하는생도를 방문까지하야일일히무마식이기에노력한다더라(청안)

佛艦仁川入港

칠일오권십시경에 긔보=불국 동양함대(佛國東洋艦隊)긔함(旗艦)과통보함(通報艦)두척은 작일오전열시이십분에인천(仁川)에 도착하야 항구밧게 닷을나리엇는데 총독부에서는일색(一色)해군대좌 인천에서는 부윤과 경찰서장이 긔함을방문하고환영의뜻을표하엿다더라(인천)

日人三名이 短刀傷人

대구류곽에서 피해자는위독

본적을 일본 복강현(福岡縣)에 두고 현재대구시내 서성뎡(西城町)에거주하는 서미원장(西尾源藏)(三○)과 역시서성뎡에서 리발업(理髮業)을하는 야견산리미(野見山利美)(三○)와산구현(山口縣)출생으로 주소업시방황하는 장야구태랑(藏野龜太郎)(三一)등삼명은 지나간오일오후십일시경에 시내팔중원뎡(八重垣町)류곽으로 도라다니며불량한짓을 하다가 팔달루(八達樓)의사환 김룡주(金龍周)(二二)와싸홈이 시작되야 장시간싸호다가 권긔삼명은 단도로칼질러서 김룡주는 곳도립병원에 수용중인바 생명이위독하다더라(대구)

扶安郡에도 三名强盜

형데집에침입 금품다수강탈도주

전북부안군 동진면장등리(全北扶安郡東津面長登里) 삼백사십칠번디 리주환(李周煥)(四三)의집에 지난이십오일 새벽세시경에세명의 강도가침입하야 리주환의안해 김정녀(金姓女)의자는방에 드러와서 주인이어데잇느냐고하매 김정녀는 거짓말로만경(萬頃)에 갓다고하즉 도로나가다가 그집사랑으로 드러가서그집머슴을 이르켜가지고 주인을차지매 아지못하겟다고함으로 가티자는 리주환의아우인리응현(李應賢)을 발로차이르켜가지고네가주인이냐고합애아니라고한즉 그대로갓다는바그세명의강도는 그길로 권긔리응현의집으로 드러가서 한명은밧게서 파수를보고 두명은방에드러가서 리응현의칼 … 의등을 몽둥이로 따리며너의 남편의간곳을 가르처주든지 그러치아니하면 현금오백원을내어 노흐라하고하며 무수란리하다가 좌긔금품을 강탈도주하엿다는바 리정녀는아이나흔지 삼일만에 권긔와가튼봉변을당하야 매우위독하다는데 강탈당한물건은 아래와 갓다

▲現金十三圓▲明紬裳二件▲玉洋木裳一件▲저고리一件▲閔木周衣一件▲月子一雙▲白米一斗五升▲玄米三斗

이상과가튼바 동면 주재소에서는즉시 활동을개시하야 혐의자 두명을 데포하야 경찰서로압송하고 계속활동중이라는때 혐의자로 데포된두명의 주소성명은 아래와갓다(부안)

扶安郡東津面下長里 文介吉

同 李在植

金榮斗氏釋放

지난사일에무사히

사상운동사하동지국장(思想運動社河東支局長) 김영두(金榮斗)씨는경성에서 개최되는조선긔자대회와 권조선 민중운동자대회(全朝鮮民衆運動者大會)에 참가하려고 상경하엿다가 하동(河東)에도라온뒤에 돌연히검거되엿더니 지난사일에무사히 방석되엿다더라(하동)

仁川에失家兒

륙일밤 열한시경에인천부내리(仁川府內里)길거리에서 울고다니는어린 계집아이 한명이잇는것을 외리(外里)파출소에서다려다가방금 보호중이라는데 여섯살이라하며 흰무명옷을입엇고 얼골은 둥글고키는두자반쯤된다고(인천)

無理한小作權移動

디주회의결의사지무시하고 디세를아니준다고소작이동

전남구례군 토지면냉천리(全南求禮郡土旨面冷川里)에 사는디주김택균(金澤均) 김성균(金晟均)김종현(金鍾顯) 세사람은한가족으로서 경남하동군 적양면(河東郡赤良面)에토디이백여두락을두고 원래디가 부당할디세를소작인에게 바더오든바 작년에 … 에이르러서는 하동군 디주회의결의로 디세가부당케 되엇슴으로소작인들은 주지아니 하다가디주의위협과 또는세력에 엇절수업서 주는사람도잇고 종시주지아니 하는사람도 잇는중인데 권긔김디주는 지금의 농촌소작인의생활이 안뎡치못한것은 조금도 생각지안코 자긔들의착취할수단만 생각하야 하동군에 토디를둔 이상에는 하동군디주회의 결의를 시행할것은정당한일이건도 불구하고디세를 주지아니한다고 금년이월경에 백여두락의 소작권을 떼여밧금신구작인간에힐난이잇슴으로경량로농회에서는 이것을 원만히해결하고자백방으로노력하는중이라더라(하동)

산에도들에도 나물캐는사람뿐

饑饉에陷한長城의惨狀

어머니밥아버지배곱하하는 어린이의부르지즘사방에서

男負女戴로離散者多數

전남장성군(全南長城郡)은원래 빈읍(貧邑)인데 겸하야 작년한재로인하야 자못비참한중에 빠졋다함은 본보에 이미루차보도한바어니와 근일에는 호세(戶稅)독촉이심한바 빈민들은유산자를 차저가서 여름농사를지어주기로 약조하고

미리삭을

엇어다가세금을 바친다 각면장(各面長)의말을들으면 호세밧기는 고사하고 돈을갓다주지안흐면 굶어죽을사람이 부지기수라하며 남부녀대하고 고향을떠나면서 어린아이들은 엄마밥 아버지배곱하하며 우는소리에 부모들은눈물파한숨으로 엇지할줄을 모르는바 그참상은 차마눈으로 볼수가업는중 장성권군을비교하면 하로한쎄도

먹는사람

이얼마가못된다하며 산과들에 나물캐는사람이 널리엇는데 나물캐는녀자에게 그의생활상태를 잠간물은즉 그는반이나 울음석거 하는말이 이것도 업서 못먹는고로이리로커리로 산을차저다니면서 하로를 뜨더먹고나서면 배는조금 곱흠을면할수잇스나 밤이면 배가곱흐기를시작하야압허서

궁굴다가

날이새기가밧부게 품을차저나감니다마는 어린자식은는어머니는질먹는데나는엇지구역이작구나서못먹겟소하는 소리는간담이문허질듯합니다하며 도로혀 못는사람에게 나물캐는시간을 허비하는것을원망하는듯 밧부게서드는 모양은참아눈으로볼수가업더라(장성)

集會

◇靑年會바사會 종로중앙청년회관에서는 금팔일부터 구일까지 이틀동안 매일상오열시부터하오열시까지 시내각상뎜 출품의『바사회』를연다는데입장은무료요 또밤에는 활동사진까지 한다는데 사진관람료는 보통삼십권학생이십권이라고

휘파람

▲함경남도를중심으로『독립단경고문이들어왓다、공산당원이들어왓다』는경보로경긔도경찰부에서는상당히머리를압흐는모양、방귀가자지면 똥이나온다더니、이

▲공동숙박소에발진병이라는권염병이발생한이래로여러가지사정이잇서서、부내두곳숙박소는모다문을닷고 따라서 이백여명빈민은 갈곳이업게되얏다한다、『여호도굴이잇고、공중에 나는새도 깃드릴곳이잇스나、오족인자는머리둘곳이업다』한은 엿지유대의 녯날랍비인만이부르지즐탄식이라!